

2/15/15

설교 제목: 세상에서 큰 자, 주님 앞에 큰 자

전하는 이: 김순배

말씀: 누가복음 1:11-17

- (눅 1:11)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 (눅 1:12)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절관주** 단 10:8, 행 10:4
- (눅 1:13)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 (눅 1: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 (눅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절관주** 마 11:11, 렘 1:5, 갈 1:15
- (눅 1: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 (눅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람들은 세상에서 큰 자가 되겠다고 저마다 아우성들입니다.

한번 사는 인생, 세상에서 큰 자가 되어 멋드러지게 살아 보겠다는데 나무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 다니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실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 아들들을 요직에 앉혀 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다른 제자들과의 사이에 한바탕 소동이 났습니다. 자리 다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 (마 20:20) 그 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 (마 20: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 (마 20:24)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 (마 20:25)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마 20:26)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 20: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 20: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살았던, 아니 지금 살고 있는 모두를 포함해서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바마? 부시? 힐러리? 클링턴? 빌 게이트? 워렌 버핏? 카네기? 간디? 테레사? 슈바이처? 프란체스카 교황? 빌리 그래함? 아니면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 자신?

예수님께서서는 누구를 가르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나요?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을 가르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마 11: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셀 수도 없이 많은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시고 예수님께서서는 세례 요한을 가르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셨을까요?

사실 그는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니었고, 세상의 학문을 갖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두른 이상한 차림을 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를 돌아다니는, 사람들 눈에 특이하게 비쳐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그를 가르켜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 곧 세상 사람들의 눈과 하나님의 눈에 앞에 큰 자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세레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었을까요?

도대체 그가 한일이 무엇이였기에 그는 하나님 눈에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까?

1.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경건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곧 '주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는 기본입니다.

(눅 1:15)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레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그의 성장 과정부터 성별되었습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바로 '나실인의 서약'에 포함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세레 요한이 나실인으로 자랐는지에 관한 성경 기록은 없기 때문에 그가 나실인으로 바쳐졌다고 확인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가 어떤 술도 입에 대지 않도록 교육을 받고 자랐다는 것을 보아 그는 분명히 다른 아이들과는 구별된 특별한 경건 생활의 훈련을 받았음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세레 요한이 '주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즉 세레 요한이 이처럼 '주 앞에서 큰 자'가 된 것은 그가 어려서부터 특별한 경건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모태에서부터 거룩한 사람으로 택정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하는 아이, 영악한 아이, 눈치 빠른 아이 등등을 보면서 나중에 뭔가 크게 될 아이라고 기대를 하며 좋아들 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부모님들은 그런 유치한 세속적 눈이 아니라 세레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처럼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를 그 출생 전부터 '언약의 자녀'로 구별하여 선택해 주셨음을 믿고 기뻐 감사하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고 언약의 자녀로 태어난 자녀들이 누리는 복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모태에서부터 부모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고 또한 태어난 순간부터 기도와 축복, 사랑 속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찬송이 귀에 익숙하게 되고, 말하기 시작할 때부터 '아멘'을 배우고, 글을 읽을 줄 알게 될 때부터 말씀을 대하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야말로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는 이 시대의 '나실인'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대중가요나 영화가 이들의 귀와 눈을 침범하기 전에 일찍부터 이들은 경건 생활이 무엇인지부터 먼저 배우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두고 경쟁하기 이전에 이들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하여 꼭 있어야 할 기본부터 갖추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과 같이 택한 자에게만 베풀어 주시는 특권 중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분들이 실망하시거나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이런 복을 어릴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세례 요한' 같은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어른이 된 후에 신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히 믿고 신앙고백하는 사람은 분명히 '성령 충만'을 받으신 분임에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결코 예수님을 주라 시인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 11:11)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이 말씀은 진짜로 '큰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아 천국 시민이 된 자'라는 뜻입니다.

제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회에서 인정받는 소위 '세상에서 큰 자'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실상은 '천국에서 제일 작은 자'보다도 더 못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큰 자'는 바로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2.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전도자'로 사는 것이 '주 앞에 큰 자'가 되는 성취 조건입니다.

(눅 1: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눅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제사장에게 나타났던 천사는 그 세례 요한이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예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태어남을 부모인 너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눅 1: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많은 사람이 기뻐하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이후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이전까지 약 400 년 동안 '참된 선지자'를 전혀 보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참된 말씀을 전하는 자가 끊어지고 오직 형식적인 예배만을 인도하는 제사장들과 신행일치의 삶이 전혀 없이 그저 율법적인 외식만 자랑하는 바리새인들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상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가운데 참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태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명을 가지고 '주의 길을 예비'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만이 진정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닫게 해 준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400 년 동안 형식적 전통과 비성경적인 유전의 굴레로 백성들의 영혼을 묶어 놓았던 종교 지도자들만 보아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 오랜 만에 자기들을 제대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진정 선지자다운 선지자를 만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귀한 사역을 가리켜 천사는 본문 17 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눅 1:17)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것은 바로 세례 요한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예언되었던 '메시아 도래' 전조의 팡파레를
울리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그는 북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의 바알 숭배 우상에 빠져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을
때 바알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와 그 유명한 갈멜산의 제단 대결을 통하여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이끈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엘리야와 똑같은 사명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도록" 즉 예수님 탄생 이전에
보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의 사명은 '아비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그 백성의 사이를 다시 '하늘 아버지와 양자'로서 붙여 놓는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거스리는 자" 즉 하나님께 반역하고 멀어지려는 자들을 "의인의 슬기"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깨닫는 자로 회복시키는 사역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깨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회복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도록 만드는 중대한 사명을 완수해 냄으로써 실로 대선지자 엘리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주 앞에 큰 자'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큰 자'는 세례 요한처럼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불신자들, 한 때 하나님을 알았으나 이런 저런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실족한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큰 자인 것입니다.

이 일은 선지자라야만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목사나 전도사가 되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넘어진 교우 한 명을 발견하고 위로하고 권면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면 그 사람은 이미 '엘리아의 심령과 능력'을 가진 '위대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찾아서 하나님께 인도하면 그사람은 이미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 앞에 큰 자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었다고 하더라도 만일 자신의 평생을 통하여 단 한 명의 사람도 전도하지 못한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소자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짧은 생을 살다 갔습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짧은 생이었습시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사명을 위해 뜨겁게 불태운 삶이었습시다.

우리도 오직 우리를 살리려 하늘의 보좌를 마다하고 천하디 천한 모습으로 이 세상까지 친히 찾아오신 예수님의 피공로가 헛되지 않도록 한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한번 밖에 주어지지 않은 생을 뜨겁게 불사르시기를 소원합시다.

그리하여 세례 요한과 같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앞에 큰 자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아주 짧은 3 행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예배를 마칩니다.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